

---

# 서울大 圖書館의 統合에 따른 大學人으로서의 요망

李 楠 永  
(인문대 철학과 전임강사)

---

이 글은 기본적으로 서울大 圖書館의 利用者 입장에서 피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둔다. 이 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냐 하는 基準設定이 圖書館人이 주장하는 力點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몇가지 요망은 局外者이기는 하나 수고하는 서울大 圖書館人에게 善意에 입각한 서울大 學校라는 學術共同體(academic community)의 同仁意識에서 언급하는 바임을 諒察하기 바란다.

## 1. 맘모스화에 따라 더욱 요청되는 倫理精神

서울大學校가 이곳 冠岳山으로 이전해 오면서 캠퍼스 중앙에 자리잡은 저 圖書館의 웅장함을 지켜보았을 때 모든 大學人은 視覺的인 경탄과 함께 內心 새로운 의욕과 기대로 충만했으리라 확신한다. 벌써부터 ‘東洋第一’ 운운하던 규모와 시설이 정말 東崇洞의 그것과는 엄청나게 대조적으로 그 비약적인 擴大感에서 벅찬 느낌을 누를 수 없다. 동승동의 도서관, 시험기간이 박두할 때면 의례껏 교문까지 늘어서야 했던 入館生의 長蛇陣을 보지 않아 좋게 되었고 滿員된 열람실에 혹시나 하고 들어서면서 受部에 자리잡은 桂先生님의 감은 듯 살피는 저 실눈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좋을 이제 이 도서관은 가히 ‘現代的’이라는 冠形詞를 씌워 어긋나지 않을 것

이다.

원래 現代라는 성격중에는 합리적인 編制와 분화된 專門工作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그 機構는 최대한의 능률과 수익을 목표로한다. 서울대 도서관도 이 원칙에 예외일리 없다. 그러나 現代의 전문화와 기계화로의 成就是 그 주체자로서의 인간을 規制하려는 반 현대적 逆理現象으로 오늘날 裏面에서 속출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제 맘모스화된 서울대 도서관도 이점에 있어서 그 不條理要素가 介在할 우려가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보장은 없다. 우려의 초점은 맘모스화된 시설규모나 전문화된 職制에서 보다는 그곳에 군림하는 인간—圖書館人에 있다. 보장받은 업무분야에서 충실히 복무하더라도 그 자체가 자신의 人間性을 규격화하고 固着시킬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으로 발을 드리놓는 이용자는 모두가 자신의 無知와 無氣力을 의탁하려는 같은 共同體의 일원이다. 도서관인은 이들을 마중하는 자세에서 누구나를 막론하고 好意로워야 할 것이다. 열람증이나 학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태도에서도 前 近代的인 檢事와 被告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問議해 온 학생에게 업무담당이 다르다고 해서 냉연히 모른다고 하거나 무관심하게 외면하거나 경멸어린 시선으로 무안을 줄 것이 아니다. 도서관인은 각자 맡은바 업무가 다르더라도 對外的으로는 이[도서관이란 一元機構를 어

느정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각종 열람실에서 복무하는 도서관인은 이용자와 가장 밀착된 관계에 있기에 역점을 두고 싶다. 몇 해전 東崇洞의 도서관에서 받은 인상이 아직도 뇌리에서 새삼스럽다. 참고열람실에 비치해 놓은 近刊 국내일간신문을 보던 때이었다. 보고자 했던 날자의 것이 공교롭게도 빠져 있었다. 어떻게 꼭 볼 수 없느냐고 문의했더니 담당직원은 인수할 때부터 없었다면서 모르겠다. 이러한 사례는 결코 한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이런 경우 열람 희망자는 발길을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가?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도서관’이란 苦笑를 빚어내는 뒷공론을 가능한 한 축소시킬 內實을 바라마지 않는다.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후 몇차례 도서관을 출입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끔 書庫나 定期刊物室보다도 書誌室과 참고열람실이 더욱 긴요하게 이용된다. 아직 整理中이긴 하겠지만 한마디로 ‘支離破碎’라 해서 과언만은 아닐 정도다. 기술적인 분류법에 의한 배열을 타할 것이 아니고 담당직원의 不誠實을 느끼게 하고 있다. 자기자리에서 조용히 자리지킴 하고 있는 것이 美德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기왕에 구분해 놓았다면 書誌室에 있어야 할 목록류와 색인류 등이 왜 참고열람실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4·6 배판의 正裝本 목록과 색인도서는 그래도 잘 모셔져 있는 반면에 비교적 작고 알팍한 平裝本의 경우는 각종 大學要覽이 놓여 있는 구석에서 팔시를 받고 있다.

그리고 보니 책들도 ‘表紙가 날개로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이 곳에서 심각히 느낀 바는 하루하루 조속한 시일내에 정연한 분류와 系列化 작업의 착수라 여겼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하는 속담이 가장 적절히 적용될 부분이라 생각한다.

또한, 서울대학교가 實驗大學制를 채용하고 있는 사실을 함께 熟考하였으면 한다. 年前부터 실

시해 오는 이 제도는 바로 도서관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학교육은 전문학자의 양성 과정이기 보다는 실력있는 知性人, 자율적인 教養人으로서 학생을 성장시키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學點履修에 있어서 160학점을 140학점으로 낮춘 취지도 학생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思惟 判斷하고 選擇 決定하는 自律的 인간이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자기 시간을 보다 많이 부여받은 이들은 시간의 자율적 管掌이라는 하나의 自由이자 責任을 부여받은 셈이다. 勉學의 터전인 大學에서 이들의 自由와 책임의 향방이 보다 많은 도서관의 善用으로 유도될 것은 지극히 권장해 보람있는 善導指針이라 하겠다. 도서관인은 이 意義를 확인하는 한 새로이 자신의 使命의 폭을 넓혀야 할 時點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도서관은 한갓 시험준비를 위한 장소로 마련된 것이 아니었다. 도서관은 몇권의 전공과목 참고서나 제공되고 휴식을 즐기기 위한 餘暇善用的 方便으로 제공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 이상의 의의를 갖춘 장소임을 다 같이 確認해야 한다. 도서관은 自己陶冶와 自我成熟의 장소임을 다짐해야 마땅하다. 이 의미에 있어서 도서관은 ‘全人의 道場’이다. 이같은 의식은 학생이나 도서관이나, 아니 그 이상의 어떤 大學人일지라도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각성시켜야 하고 注入되어져야 할 精神姿勢이다.

도서관인은 자신이 학생들에게 학생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善意의 인간임을 일깨워 주기 바란다. 물론 학생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라면 모름지기 예의와 존경을 지닌 자세로써 도서관인에게 접근할 것은 당연한 前提라 하겠다. 이와같은 次元에서의 도서관인과 이용자의 상호관계는 냉정한 직업의식을 훨씬 능가하는 봉사적 인간관계에 있는 것이다. 보편적인 人間愛에 기초하는 倫理精神의 所在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 2. 모든 사람은 읽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읽을 권리가 있다’는 이 말은 1972년 ‘世界圖書의 해’를 맞이하여 선포된 “圖書憲章”의 條文이다. 이 말은 또한 ‘책은 만인의 것’(Books for All)이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표방된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宣言과 口號는 요즘 圖書館協會나 각종 도서관이 중심되어 선전되는 듯한 인상이다. 그렇다면 이는 本末이 전도된 것이라고 본다. 讀書를 권장하고 보급하는 일은 도서관의 유익한 對外事業의 하나이다. 한편 열람자는 모두가 읽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장본인이다.

오늘날 市中에는 개인장서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의 同好人 그룹도 여럿 나타났고 이들은 자기의 愛藏本을 교환해 보거나 함께 展示 열람하여 사회의 美風으로 번져오고 있다. 하물며 독서장려에 앞장서 온 도서관의 도서가 어떤 特定人에게만 독점적으로 열람 貸出된다면 이는 엄청난 모순이다. 서울대 도서관의 경우 長期貸出된 도서에 관하여 一言하고자 한다. 현재 館外로 장기대출된 도서가 唯一本인 경우(거의 대부분이지만) 또 다른 열람희망자가 신청한다면 이에 대한 도서관의 배려와 알선방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들 신청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放置된 현실을 直視할 필요가 있다. 도서헌장이 口頭禪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대출중’이라는 도장찍힌 열람신청서를 받아든 대출희망자는 이미 舊習에 익숙해 있다. 그저 ‘할 수 없군’ 하는 이른바 阿Q式의 체념으로 물러서고 있다. 요구하지 않고, 캐어묻지 않고 안타깝게 간청하지도 않고 물러서는 저들 점잖은 서울大生 때문에 도서관인 들은 매우 편할런지 모른다. 대출계에서 이 도서가 모대학 아무게로 장기대출되어

있으니 그 분에게 직접 연락해 보라는 언질을 받는 것만도 큰 다행이요 감사해야 할 지경이 되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처리될 것인가? 예는 도서관인에게 도서헌장을 크게 외치고 싶다.

이와같은 처사는 결국 도서관인의 자기적능——참고봉사(reference service)를 포기하는 사태라 하겠다. 하루 빨리 自己回復의 각성이 요구된다. 장기대출된 도서는 분명 그 대출자에 의하여 艱요하게 研究資料로 쓰여질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2·3개월이라는 기간을 매일 매시간 그 책만을 붙들고 몰두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극히 편리하게 마련된 교내전화로 통하여 한두번만 수고하면 곧 대출자와 연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열람희망자가 있으니 일정기간내에 단 2·3일 정도라도 임시 반납해줘야 겠다고 통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중개연락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도서관이 생기면서부터 自動化되어져야 했다. 열람자의 권리는 최소한이나마 보호되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모든 도서관으로부터의 대출도서는 대출기간중 절대적으로 獨點대출하였다는 이용자의 觀念도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도서는 대학인 전체의 것으로 公益性을 지닌 것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館外로 대출된 도서에 대한 열람희망자의 신청은 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보장받도록 制度化했으면 싶다. 따라서 無知를 달래려는 知的으로 弱者인 그들이나, 자신의 연구를 보다 많은 참고자료를 통하여 박차를 가하는 强者인 그들은 도서관인에 의하여 고질적인 陋習으로부터 解放되어야 겠다.

‘外國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는 식의 事大用法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진정코 圖書憲章실현의 일환으로서 成事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겸하여 ‘모든 사람은 읽을 권리가 있다’는 消

息을 奎章閣圖書室에도 알리고 싶다. 이곳 도서는 館外貸出이란 물론이고 校內貸出조차도 ‘沒常識한 소리’로 귀여 박히는 무시무시하고 컴컴한 동굴과 같다. ‘世界圖書의 해’에 대해서 늦게나마 청명한 빛을 받았으면 싶다. 어제의 東崇洞에서 규장각도서 열람실은 정말 올챙이 집 [蚪屋]을 방불케 하여 同情을 사면서 넘겨 왔지만 오늘 저 도서관 일층의 廣場같은 열람실은 여름철 미루나무 그늘밑 송아지 낮잠보다 더 지루하고 한적함을 느끼게 한다. 대외적으로 서울대의 寶庫로 선전되는 奎章閣書庫가 대다수의 대학인에게는 그 書香조차 맡기를 거부당하고 있다. 현재의 규장각도서실은 마치 이른바 狂의 수집광 소유의 스테레오시스템과 같은 실정으로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규장각도서목록은 자유열람토록 비치하여 놓음이 좋은 것 같은데 도서관인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다. 규장각도서 카드박스가 직원사무실에 놓여있는 것도 局外者의 눈에는 어떤 거부반응으로 받아진다.

규장각도서의 참된 存在價値는 우리 東洋과 韓國의 思想과 理念을 수록한 고문헌인데 있다. 물론 희소가치도 따르고 板本學의 가치도 크다. 이들 도서가 보다 폭넓게 개방되고 研究者와 학생에게 열람 활용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時代의 要請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적인 탐구가 오늘날만치 절감되는 시대가 있었던가를 반성해 볼 때 오늘의 時代精神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들 도서를 해방시켜 마땅하다. 불가피하게 收藏이 美德일 수 있는 것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內容公開를 禁할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닌 한에는 요즈음 같이 발달된 複寫나 제목스寫本정도로라도 공개 열람시킬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여하튼 이상의 소견은 규장각도서실에 대하여 아무런 挑戰의 의도없이 愛知의 도서관 애용자로서 하나의 權利請願이다. 골동품적 가치나 書

誌學의 귀중성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기 보다는 규장각도서는 보다 개방적으로 즐기찬 民族精神의 啓發에 있어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 줄 문헌자료로서 寄與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3. 韓國學과 東洋學 연구의 중심기 구 되기를

서울대 도서관은 歐美 선진국의 도서관같은 유명한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는 大望을 품고 있는가?

서울대 도서관은 그대의 발전적 운영지침에서 어떤 哲學을 갖고 있는가?

서울대 도서관이 營利機關이 아닌데에서 收書量의 증대와 기구의 확장등을 도모함이 자체경비의 조달이 불가능하고 정부지원이 제대로 따르지 않아 도서관 발전에 커다란 制約으로 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이 결핍의 상태에서 우수한 도서관으로서의 기대와 설계는 한갓 신기루같은 幻像으로 돌려야 할 것인가? 기왕에 收藏되고 있는 8십여만권의 도서도 국내적으로는 최대량인 與件에서 서울대 도서관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의 妙로써 現狀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體質改善을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이 점에 있어서 筆者는 국외자로서나마 서울대 도서관이 韓國學과 東洋學연구의 中추기관으로 마련되어 지기를 힘주어 권하는 바이다.

서울大學校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을 자부하는 國立大學이자 韓國學과 東洋學의 集約的 연구기관으로 갖추어진다는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앞서 當爲的인 사실이다. 東洋第一 운운하는 맘모스 도서관에 어울릴만한 동양제일의 藏書量을 확보하려는 夙望도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東洋을 대변할 수 있고 韓國의 정신 문화를 제시할 수 있는 동양학과 한국학의 研究

本山으로 꾸밈에 있어 그 成事條件은 서울대 도서관이 가장 適任이라 확신한다. 서울대학교가 ‘國家와 人類社會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에 목적을 두었다고 했다면 이미 도서관에서부터 國學分野의 도서는 자주적으로 검토 정비했어야 했다. 어느 곳보다 훨씬 많은 이 관계의 藏書量과 유능한 司書人 그리고 학문분야에 정통하는 전문인을 포용하고 있는 立地條件에서 이제까지 서울大學校가 자기의 特色을 갖추지 못했던 현상은 궁극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哲學의 빈곤증세로 診斷될 수 있을 것이다.

韓國學 관계도서와 東洋學 관계도서는 최소한 현재의 참고열람실과 같은 開架式의 기능으로 分類해 놓는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 같다. 이 때에는 현재같이 일반서고, 정기간행물실, 참고도서실 및 규장각도서실 등으로 四分五裂되고 있는 관계도서를 一元化시켜야 할 것이다. 서울대 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과 強點은 이제 본연의 모습을 갖춰야 할 때다. 國學에 관한 주제적 인식과 탐구작업이 적극화된 오늘 날 도서관은 자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과시할 공헌의 기회를 살려 구현시켜야 한다.

현재 참고열람실 안에서 만도 韓國學의 중요성은 하나도 의식되어 있지 않은채 부피 큰 책이면 무조건 배열하는 식인것 같다. 韓國學大辭典은 역사 분류서가에 꽂쳐 있는가 하면 朝鮮王朝實錄은 따로 외롭게 놓여 있다. 기왕에 참고 열람의 의의를 살릴라면 三國史에서부터, 高麗史, 承政院日記 등을 왜 모두 集成해 두지 못하는지 모를 일이다. 佛敎大藏經도 반드시 비치되어야 할 것이 빠져있다. 여러 影印業者에 의하여 간행된 그 많은 國學關係 叢書 全集類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東洋學 관계도서는 연구발전에 필요한 유리한 조건을 어느정도 구비하고 있다. 帝國大學의 유물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충실히 所藏되어 있고 오히려 解放이후부터 대부분이 空白상태를 이룬

다. 해방이후의 도서는 비교적 구입하기 용이하기에 오늘날 각 私立大에서 死力을 다하여 문헌을 구입하는 활동에 비하면 事半功倍의 효력을 얻을 것이다. 그 實例를 보면 成均館大나 東國大등에서는 각기 東洋學과 佛敎學의 연구 중심체로 발전하고자 거액을 투자하여 기본자료를 구입하거나와 이들 도서들은 서울대 도서관에서 이미 收藏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곳에서는 책들이 그 眞價를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 심히 애석한 생각일 뿐이다. 四庫全書, 國學基本叢書 說文解學, 二十五史, 東方雜誌, 燕京學報등은 이미 온전히 갖추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되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따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도서관인은 자신의 과업이 대학과 국가의 文化使命을 담당하는 것으로 의식할진데 이는 또한 民族意識 내지 국적있는 교육과도 깊은 관계에 있음을 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모여진 意志가 韓國學과 東洋學이란 精神寶庫의 集大成으로 성취될 보람찬 民族文化의 暢達에 앞장 서 줄 것을 기대하는 바 크다.

#### 4. 요망되는 도서관인의 像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하여 여러 도서관과 도서관학과에서 발간한 기관지들을 보면 도서관에서의 헌신이 얼마나 숭고한 美德인가가 강조되고 있음을 본다. 도서관인들은 자신들이 文化의 奉仕者로서 얼마나 熱意와 자부를 갖고 종사하는지를 엿보게 한다. 동시에 그들은 도서관 운영예산의 太不足 현상, 자신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비롯한 신분보장의 문제가 또한 얼마나 그들의 근무의욕과 작업능률을 위협하는가에 관하여 심각한 憂慮를 표명하고 있다. 진정 이같이 안타까운 실정은 서울대 도서관에서도 예외일 수 없음은 자명하겠다. 서울대 도서관이 발전을 기

약하려는 限에는 그 저해요소인 운영예산,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등의 財政과 福祉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어야 할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도서관인들은 외국도서관에 관하여 꽤 많이들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사실 상 구미 선진국에서조차도 일부 몇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薄俸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 돈과 환산하면 많은 액수같지만 그네들의 평균 개인소득율로서는 중하위를 맴돈다고들 한다. 외국에서의 도서관사무실의 풍경은 흔히 여자직원이 절대다수임을 볼 수 있다. 남자보다 여자에게 適性인 직업때문이라고도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요소는 남자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報酬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기 때문이다. 여직원이 대부분인 도서관 환경에 익숙했다가 서울대도서관을 비롯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을 둘러 보았을 때 여자보다는 남자직원에 절대다수인데 아연한 생각을 갖게한 경험도 있다. 처음에는 국내 도서관은 보수가 꽤 좋은 모양이구나하고 짐작했을 정도이었다. 그러나 국내의 도서관인들도 외국에서 못지않게 처우개선 복지문제등에 많은 난관이 깔려 있음을 알았고, 그러면서도 떠나지 않고, 또는 떠나지 못하는 저 남자 도서관인에 대하여 꽤 여러번 速斷을 반복해 왔다.

물질문명이 제대로 균점되지 못한 실정에서나마 우리 주변은 각박할 정도로 拜金主義가 만연하고 있다. 기계화된 都市社會의 삶은 사람들을 능률위주로 평가하게 되었고 그가 얼마나 인간다운 인간이나 하는 人間尊嚴은 따지지 않게 되

었다. 따라서 황금만능의 思考와 기능본위의 삶은 마치 현대를 사는 현명한 處世같기도 하다. 이에 비하면 도서관인은 정말 제대로 보장받는 혜택도 없으면서 헌신과 봉사만이 요구되는 직업같다. 여기서 도서관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결단과 자기 선택의 人生觀이 요구되어질 것 같다. 여기서 도서관인은 황금숭배의 관념이나 능률위주의 분망보다는 도서관직을 天職이나 聖職으로 받아드릴 굳은 신념의 人格人으로서 나서야 할 것이다.

도서관 출입때 가끔 컷전에 들려오는 사무실에서 조잡한 雜談이나, 지나칠 정도의 유치한 弄談등은 좋지 않은 선입감을 갖게한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관계에서 벌써 듣기 거북한 직장에서의 고충을 토로하는 것도 自肅할 인간성 함양의 문제라 하겠다. 도서관인에게서 바람직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문적 지식의 구비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에 못지않게 열람자에 대한 봉사정신의 발휘를 듣고 싶다. 信賴感이 따르는 신속 정확 그리고 친절한 속에서 원하던 도서를 받아드는 열람자의 喜悅은 얼마나 큰 것인가!

현실적인 惡條件에도 불구하고 天職인양 학술에의 봉사를 아끼지 않는 도서관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敬意를 표한다. 도서관인 여러분은 서울대의 異邦地帶로서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보다 제반 학술을 總 集結하고 다시 보급하는 학문공동체(universitas)의 一員이라는 一體感이 도서관을 통하여 구체화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